하나님 뜻을 추출하는 제련법

(여호수아 10:11~43)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벧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추출하는 제련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뜻을 추출하는 제련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추출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제련법이 무엇일까요?
일본은 부자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11위나 13위라고 하는데 여전히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부자 나라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막대한 부가 축척되기 시작한 때를 사람들은 16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를 가능하게 했던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은과 도자기의 수출입니다. 은과 도자기의 수출은 우리나라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쇼군을 중심으로 한 무사정권인 막부가 일본을 지배합니다. 이들이 16세기 중반부터 전쟁자금 준비를 위하여 은광을 개발하게 되는데, 혼슈 시마네 현에 이와미긴잔 은광이 있었습니다. 이 은광은 당시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은의 1/3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이와미긴잔에서 나는 엄청난 양의 은을 어떻게 제련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기술을 들여가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연산군 9년(1503년) 때의 기록을 보면 이미 김감불이 그의 노비인

김검동을 데리고, 소나무 재를 이용한 연은 분리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광석에서 은을 추출하기 위하여 납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일본의 은광에서 나온 것들이 엄청난 양의 납을 함유하고 있어서, 조선의 연은 분리법이 1533년에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날의 거부로서의 기틀이 다져지게 됩니다. 또한 조선백자를 만드는 도자기공을 다 데려가서 도자기를 수출하여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광석들을 추출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제련입니다.

그런데 시139:17~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아침이 되고 낮이 진행되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모래알처럼 많고, 나의 삶을 향한 그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보배’라고 합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배는 바로 주님의 생각입니다.
돈, 보석, 은과 금, 집안 배경, 학식, 건강이 보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 속에 돈이 들어 있으면 현실에서도 돈이 주어질 것이고, 아버지의 생각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우리의 현실에도 다이아몬드가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은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라서 그 생각 속에 들어있다면 다 현실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내 손에 돈이 없고 은과 금이 없고 보석이 없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석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면서 보석이 주어질 것입니다. 돈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배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고,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인데 이 보배로운 생각이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현실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제련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분순물이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뜻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야 하는데, 내 뜻 안에는 이미 이 세상의 수많은 법칙이나 규칙이나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도, 습관, 윤리적 원칙, 풍습상의 규칙, 사회적 상식이나 법칙, 습관, 절대적인 자연법칙 등 수없이 많은 제반 법칙들이 이미 내 생각과 내 뜻 속에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돈을 집어와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지 않으면서 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의 습관이나 풍습이나 관습이 마음에 고려되고, 또한 내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벌려면 바다 위를 뛰어갈 수 없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한다는 식으로 사회적 관습이나 자연법칙까지도 마음

에서 고려가 되어서 내 뜻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법칙들에 얽매이고 구속받는 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은 또렷해질 수가 없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내가 깰 때에도 잠잘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내려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이 불순물에 섞입니다.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은을 캐면서도 제련법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련법을 모르면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물리적인 법칙이나 자연법칙에 구속되어 있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바다를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인간세상에서의 가치기준과 신념체계 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 원칙과 규칙과 법칙들에 매여 있던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삼위일체, 성령으로 잉태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등 어느 것 하나도 기존의 인간 세상의 법칙이나 규칙들에 매여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진리들입니다. 매순간 갖가지 세상의 법칙에 매여 있는 내 마음에서, 지금도 빠짐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서 기존의 모든 법칙이 녹아내리는 제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또렷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에는 아모리 다섯 왕의 동맹군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하는 아모리 동맹군 위에 우박덩어리가 쏟아져서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죽은 숫자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우박덩어리'의 히브리 원어를 보자면 '아바님 게돌로트'라고 하는데 '큰 돌들'을 말합니다. 우박이지만 여호수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큰 돌들로 기록합니다. 하늘이 아모리 동맹군에 돌을 던지셔서 돌에 맞아 죽은 셈입니다. 이 돌이 상징하는 바와 아모리 다섯 동맹군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향을 살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거삼아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붙잡았지만, 이 아모리 다섯 동맹국은 전혀 하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맹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있으셨을 것이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제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뜻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려면 제련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제련하지 않은 원석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을 고려하지 않고 하늘을 계산에 넣지 않

고 인간 세상에 갇혀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제련되지 않은 원석의 상태로 있게 되고, 그 버려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원석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돌을 제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그 돌을 집어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 번 보세요. TV에서 드라마가 나오지만 어느 드라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이나 뉴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가 너무 감동적이라 100번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것만큼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로 100번을 보셨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게 되자 이제 드라마가 전혀 재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늘 맛을 조금이라도 보고나면 이 땅에서 하늘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제련되지 않은 원석으로 버려진다면 반드시 그 원석들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갖고 계셨던 모든 생각들이, 이 땅의 제반 규칙, 원칙, 법칙에 매인 내 마음에 들어와서 혼합이 되어 버려진다면 심판대에서 그 돌들이 나를 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태양과 달이 멈춘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해롤드 힐 연구팀에 속한 우주개발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 작성을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태양과 달의 궤도를 전자계산기로 살피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궤도 진행상에서 꼭 하루, 24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살펴본 결과 23시간 20분이 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나머지 40분은 왕하 20장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태양의 그림자를 일영표 상에서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일영표 상에서 십도 뒤로 물러 간 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40분이 된다고 하는데 놀랍지요. 물론 이런 과학적인 증명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추려는 황당한 생각이 떠올랐느냐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태양과 달은 하늘에서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을 뿐이지 언감생심 '멈춰라, 가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호수아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율법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줄을 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갑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곁자리를 여호수아 마음에게 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 지구라는 인간세상의 감옥을 탈출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여호수아의 몸까지도 태양계 안의 지구에 있

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은 율법을 증거삼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보게 되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칙도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줄 때에 무대 위의 인형극을 보면서 즐기지 않고, 뒤로 돌아와서 인형극을 행하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까르르 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라만상 태양계라든지 은하계라든지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곁에 가서 우주를 바라보니, 이 조그만 지구에 절대적인 법칙과 규칙과 원칙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매여 사는 모든 관습과 풍습과 도덕적 윤리적 법칙들이든지 그 민족만의 특수한 법칙이라든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의 모든 자연법칙을 포함한 규칙들이 다 녹아내려 버립니다. 이게 바로 증거인데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감옥을 탈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은 그 자체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태양과 달이 멈추었을 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은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 속에 태양과 달을 멈출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황당한 이야기고 동화나 신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에게서도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있고, 그렇게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상적인 일로 여겨져야 하는 마음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마음상태가 바로 제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와 모든 성경의 기적들을 연결시켜 보면 옛날에 일회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각은 보배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돈을 버는 것이 보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은과 금을 획득하는 것이 삶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또렷하게 추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구속하고 있는 세상의 원칙과 규칙과 법칙과 절대적인 자연법칙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창조주이시고 인격자이신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보면 절대적인 법칙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규칙과 법칙과 원칙이 용광로에서 녹는 것처럼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늘에 올라간 마음이 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

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의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돈에 매여 있거나 육체로 만나는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있으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만 마음에 담는 것인데, 담고 나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생각의 실현으로 진짜 보배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잠에서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는 시편139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기존의 모든 법칙과 규칙과 원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잘 산다, 돈이 많아야 된다,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등의 모든 신념 체계가 없어지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만 떠오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은 다르게 보여 집니다. 이전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으레 그런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양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아, 너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라'라고 미리 규칙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따끈따끈한 뜻으로 태양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도 그냥 저절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화분을 내가 내리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붙잡아 두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에 모든 사물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아버지를 뵙는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고 이럴 때에 하나님아버지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아버지가 이렇게 충만해질 때에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게 될 때에, 사람들의 눈에는 기묘하고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으로서 표현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굉장한 수련을 거친 도사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맞이하는 환경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 제련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얽매고 구속하는 모든 법칙과 규칙과 원칙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하늘로 올라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태양과 달을 향해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단순히 십자가 생활화 하나만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세계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사건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해와 달을 멈출 수도 있다는 황당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오늘도 줄곧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